

# 전멸위기에 처한 주걱부리도요

지난 30년간 총 개체수의 90% 감소  
최근년간 마리수가 빠른 속도로 계속  
줄어들고있는 원인

- 서식지의 류실
- 간석지의 오염
- 생태계 교란
- 사냥
- 번식률의 저하

4 000마리

1977년

400마리 이하

2014년

2008년에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주걱부리도요를 전멸위기종으로 평가하였다.

2008	전멸위기종(CR)
2004	위기종(EN)
1994	취약종(VU)
1988	위협종(T)



전멸위기종

# 주걱부리도요를 구원하자

주걱부리도요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 서식지들에 대한 개간을 금지하고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주걱부리도요를 잡지 말아야 한다.
- 대중의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 정상적인 조사 및 감시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주걱부리도요의  
다리에 끼운  
색가락지

주걱부리도요의  
이동과정을  
추적하는  
위성추적기

색가락지나 위성추적기가 달린  
주걱부리도요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알려주기 바란다.



This was printed with support of  
Hanns seidel Foundation (Germany).

아시아의 연안에서만 볼수 있는 새

# 주걱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Spoon-billed Sandpiper



조선-평양  
주체108(2019)





# 주걱부리도요의 특징

형태: 부리끝이 주걱모양이다.  
 길이: 14~17cm로서 참새만하며 날개편 길이는 32cm이다.  
 질량: 수컷 29g, 암컷 34g정도이다.  
 색깔: 머리부분은 붉은 밤색이고 가슴부분은 검은 밤색이며 배는 흰색을 띤다.  
 주걱부리도요는 계절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번식기에는 밝은 밤색이 나고 비번식기에는 회색을 띤다.

어린새



비번식기



날아가는 모양



번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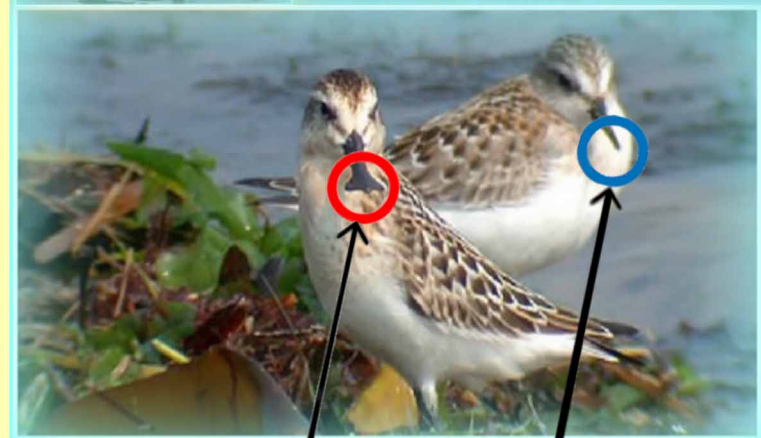
먹이: 게, 새우, 물풀, 곤충을 먹는다.  
 년중의 거의 모든 시기를 조간대 개펄에서 생활한다.  
 번식: 5~7월 사이에 한번에 2~4알을 낳으며 알싸기기간은 18~20일이다.  
 서식지: 연안의 모래릉선, 호수, 진펄 등에서 산다.  
 수명: 최대 17년까지로 조사되었다.



# 주걱부리도요의 이동 경로



주걱부리도요는 먼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이다. 매해 겨울나이지역으로부터 번식지까지 약 16 000km이상의 거리를 왕복이동한다. 이동경로는 로씨야동부씨비리, 조선반도, 중국인디아, 방글라데슈, 만마, 타이, 월남, 등 동아시아의 연안을 낀 나라들을 편결한다. 주걱부리도요는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의 동서해연안에서 발견되는데 가장 중요한 서식지는 드넓은 간석지가 펼쳐져있고 조수차가 큰 조선서해연안이다.



주걱부리도요

좁도요

좁도요와 비슷하지만 몸이 좀 크고 부리쪽이 주걱모양이므로 쉽게 가려볼수 있다.